성리학의 아동교육 목적으로서 근본배양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ultivation of the Fundamental" of the Xing-Li-Xue(性理學) as Aim of Child Education

신동은(Dong-eun Shin)[1)]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eaning, the method of "Cultivation of the fundamental" as aim of child education in context of the Xing-Li-Xue(性理學) educational theory. Chu-hsi understood the meaning of "Cultivation of the fundamental" as Ching(敬, the cultivation of good nature in human mind). The method of "Cultivation of the fundamental" consists of quiet sitting(정좌), attention(주의집중), moral environment(도덕적 환경) and practicing propriety(예의 실습). Through quiet sitting and attention, learners may reach a condition of mind which is free of their selfish desires and in which they can find out their original nature. The education in Confucianism accepts the environment as a significant element in forming human personality. Making moral environment has leaners to take good value with ease. Characteristic of study in Xing-Li-Xue is to emphasize to observe concrete clauses of propriety. The reason why Xing-Li-Xue emphasizes propriety is that Mind Study may be maintained through Body Study. In conclusion, the "Cultivation of the fundamental" in the Xing-Li-Xue is to form the power to regulate selfish desires and thus behave more moderately.

Along these points, not only quiet sitting which relexes the body and soul, but also song and dance are not considered as contrary to Xing-Li-Xue educational theory. The various ways of "Cultivation of the fundamental" of Xing-Li-Xue educational theory make people recognize, understand and experience good innate nature of human beings. And we can reach the conclusion that education of Xing-Li-Xue uses so many methods that learner can accept moral value as naturally as possible.

Key Words : 성리학(Xing-li-xue), 근본배양(Cultivation of fundamental), 소학(Xiao-xue), 정좌(Quiet sitting), 주의집중(Attention), 도덕적 환경(Moral environment), 예(Propriety).

[1)]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Corresponding Author : Dong-eun Shin, Department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120-740, Korea
E-mail : dongseun@hanmail.net

Ⅰ. 서 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동교육의 목적은 인간됨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생애 초기에 환경으로부터 흡수하는 경험은 뇌에 깊이 각인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청소년기에 이르러서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양옥승 외, 2003 : 9) 어린 시절의 교육적 체험은 성인이 되어 갖게 될 세계관의 바탕을 형성한다.

나무의 무성한 가지와 잎이 뿌리의 건실함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관점에 근거하여 인간 성장 과정을 이해하는 성리학은[1] 어린 시절의 교육적 체험이 인간됨의 뿌리를 형성하는 것으로 여겨 매우 중시하였다. 특히 성리학의 공부론은 아동교육의 목적이 마음의 형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이해한다. 율곡은 배우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문제가 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것에서 병폐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2] 여기서 율곡이 말하는 근원적인 병폐란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전제되어야 할 태도와 지향성이 확립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인식과 실천의 문제는 마음의 태도에 기초하고 있다는 성리학적 인식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성리학의 아동교육 원리를 담고 있는 『소학』[3]의 편찬은 어린 시절의 마음의 형성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소학』은 쇄소응대(灑掃應對)로 대표되는 기본생활 습관과 자신의 내·외면을 가다듬는 실천적 덕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퇴계는 "덕성을 배양하고 근본을 세우는 것은 『소학』에 있고, 규모를 넓히고 줄기를 뻗게 하는 것은 『대학』에 있다."[4]라고 함으로써 『소학』 교육의 목적이 근본적인 마음의 형성, 즉 근본배양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본 연구는 정보의 홍수에 노출된 현대 사회에서 어릴 적의 적절한 교육적 경험을 통해 마음의 바탕을 형성하는 근본배양이 더욱 중요해진 과제이며, 근본배양의 관점에서 아동교육을 이해하고 그 실천방법에 고심하였던 성리학의 교육적 이해가 현대 교육의 하나의 대화 상대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성리학의 아동교육의 목적과 그 방법에 대하여 탐구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성리학의 아동교육의 목적 및 방법은 너무 포괄적인 용어로 설명되어 있어서 성리학 특유의 관점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다. 예컨대, "성리학의 대표적인 아동교재라 할 수 있는 『소학』을 통해 볼 수 있는 교육의 목적은 '근본배양'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근본이란 대학 교육의 근본이며, 나아가서는

---

1) 『朱子語類』, 卷 20, 76. 可學云, 如草木之有本根, 方始枝葉繁茂. 曰固是. 但有本根, 則枝葉自然繁茂. 不是要得枝葉繁茂, 方始去培植本根.

2) 『栗谷集』, 「聖學輯要」, 朱子答程允夫書曰, 每與吾弟講論, 覺得吾弟明敏, 看文字不費力, 見得道理, 容易分明, 但少却玩味, 踐履工夫, 故此道理雖似分明, 却與自家心身無干涉, 所以滋味不長久, 纔過了便休, 反不如遲鈍之人, 多費工夫, 方看得出者, 意思却久遠. 此是本源上一大病, 非一詞一義之失也.

3) 원래 '소학(小學)'이라는 용어는 중국의 고대에는 자학(字學)을 의미하였다가 근세에 와서 주자가 편찬한 『소학』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 이규경은 조선에서는 '소학(小學)'이라는 용어가 자학(字學)만을 의미한 적은 없고, '어린이의 학(學)' 모두를 뜻하는 말이었다고 한다. 이규경은 조선시대에 자학(字學)에 속하는 책으로서 『천자문』, 『신증유합』, 『훈몽자회』를, 주자의 『소학』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 책으로 『격몽요결(擊蒙要訣)』, 『대동가언선행(大東嘉言善行)』, 『동몽선습(童蒙先習)』, 「동규(童規)」를 제시하면서, 이 모두를 소학(小學)으로 설명하였다(李圭景, 『오주연문장전산고』 XVII, 민족문화추진회, 1978, 123-125쪽.). 즉 소학(小學)은 문자학습을 포함한 어린이의 배움을 총칭하는 것으로, 어린 시기의 교육 원리는 『소학』에 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4) 『退溪全集』, 卷 42, 「開寧鄕校聖殿重修記」. 養德性而立根本, 在乎小學, 廣規模而達幹支, 在乎大學.

인간 교육의 근본을 의미한다(안경식, 2000 : 150)"라거나, "어릴 적의 학문은 성인이 되기 위한 기초, 혹은 수기·치인(修己治人)의 근본이 되는 것(류점숙, 1994 : 52)"이라는 이해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즉 선행연구들은 성리학의 아동교육의 목적이 "인간됨의 근본을 형성"하는 것이라는 점을 적절하게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어떠한 정서적·인격적 태도를 형성하기 때문에 『대학』 공부의 근본이 되며, 성인됨의 근본이 된다고 이해하였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않았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배양의 필요성, 의미, 방법이 성리학 공부론의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이해한다. 이를 위해 근본배양이 제기된 교육적 문제의식을 『소학』의 편찬과 관련하여 논의한 후, 성리학의 마음에 대한 이해로부터 근본배양의 의미를 탐구하였다. 그리고 『소학』을 포함한 기타의 성리학서(性理學書)에서 볼 수 있는 근본배양을 위한 방법을 분석하였다.

성리학의 아동교육관 연구는 전통에 기초한 아동교육이 전통놀이, 전래동화, 전래동요와 같은 몇가지 기능만을 단기간에 가르치는 식으로 진행되어 온 상황(문미옥·이혜상·민행난, 2004 : 33)에 비추어 볼 때 의의를 갖는다. 즉 본 연구는 개별적 교육내용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중시되었는가를 이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Ⅱ. 근본배양의 필요성 및 의미

1. 근본배양의 필요성

성리학 공부론의 핵심적인 특징 중의 하나는 학습자들의 자각적 실천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흔히 성리학의 공부론이 학습자들을 수동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덕목의 교화론으로 여겨지지만, 성리학이 원론적으로 의도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본성을 깨달아 삶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사태 속에서 본성을 실현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늘이 명한 것을 본성이라 하고, 본성에 따르는 것을 도(道)라 이르며, 도를 닦아가는 것을 교육이라 한다(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라는 명구에서도 잘 드러난다. 성리학 공부론의 대전제라 할 수 있는 이 말은 인간이 걸어야 할 천명으로서의 길을 자각적으로 걸어가는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성리학자들이 신독(愼獨)을 강조하는 것에서도 주체적 실천이 강조되었음을 볼 수 있다. 주희는 신독의 '독(獨)'을 '남들은 알지 못하고 자기 혼자만이 아는 것'이라고 함으로써[5], 신독의 의미를 '내면적 생각의 마디마디를 삼간다'는 의미로 이해하였다. 즉 남들에게 보이는 것 뿐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생각과 의지도 성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서, 이것은 학습자 자신의 의지적 실천을 전제로 하고 있다. 성리학에서는 신독을 소인과 군자를 나누는 분기점으로 이해하여, 내면의 자기성찰을 바탕으로 외면의 몸가짐이 올바르다면 군자이지만, 외면의 몸가짐만을 그럴듯하게 꾸민다면 소인일 뿐이라고 한다.[6]

그런데, 내적 동기 없이 꾸준한 실천이 어렵다고 할 때 학습자들의 주체적 실천을 이끌어내는 추동력은 무엇일까. "앎을 이루지 못하고서 뜻을 성실하게 하려고 하면 이는 단계를 뛰어넘은 것이다. 애써서 억지로 행하는 자가 어

5) 『心經附註』, 「誠意章」. 朱子曰, 獨者, 人所不知, 而己所獨知之地也.

6) 『心經附註』, 「誠意章」. 雲峰胡氏曰, …蓋誠意, 爲善惡關, 過得此關, 方是君子, 過不得此關, 猶是小人.

찌 오래갈 수 있겠는가"[7]라는 표현에서 그 해답의 일단을 볼 수 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억지로 하는 것일뿐 주체적인 실천이 될 수 없다. 신독의 의지적 실천은 선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인식한 후에라야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의 공부이다. 이것은 『대학』의 8강령에서 성의(誠意), 정심(正心)의 내면을 성찰하는 공부가 격물치지의 다음에 위치하는 것과 상응한다. 따라서 『대학』의 공부는 확실한 인식을 전제로 실천해가는 선지후행(先知後行)의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앎에 이르기 위한 공부는 어떠해야 하는가. 올바른 인식을 성취하기 위해서 먼저 갖추어야 할 마음의 상태는 무엇인가. 사물에 대한 이치 뿐 아니라 주체 자신의 본성 인식을 목적으로 하는 성리학의 격물치지 공부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한 마음의 상태는 어떠해야 하며, 그것은 어떠한 실천적 활동을 통해 성취될 수 있는가.

『소학』은 이러한 물음과의 관련 속에서 편찬된 책이다. 주희가 그의 문인 유청지(劉淸之, 子澄. 1132-1189)와 함께 편집한 『소학』은 고대에 존재하였던 소학교의 교육내용과 교육정신을 이어받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고대 교육의 권위를 빌어 이성적 탐구 활동에 이르기 전의 적절한 공부내용과 방법이 담겨 있는 책이다(신동은, 2004a).

성리학의 집대성자인 주희는 학생들이 유학의 가르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결정하여 정교한 교육과정으로 발전시켰다. 그것은 사서(四書)의 확립과 『소학』의 편찬으로 특징지워진다. 주희는 많은 곳에서 『대학』과 대비 · 관련하여 『소학』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음의 인용문을 통해 이치탐구를 출발점으로 하는 『대학』 공부에 대한 『소학』의 교육적 의의를 이해할 수 있다.

> 어려서 『소학』을 익히지 않으면 **"놓여진 마음을 수렴하여 덕성을 함양할 수 없으므로"** 『대학』의 기본이 성립될 수 없고, 장성함에 이르러 『대학』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의리를 살펴 사업을 이룩해 나갈 수 없기에"** 『소학』의 성공을 거둘 수 없다. 이것은 곧 학문의 대소가 구별되는 까닭이다. … 오늘날 어린 선비들에게 반드시 먼저 쇄소(灑掃), 응대(應對), 진퇴(進退)와 예악사어서수(禮樂射御書數)를 익히는데 힘을 다하도록 하고, 그가 성장하였을 때에는 명덕(明德) 신민(新民)의 지극한 선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학문하는 차례에 있어서 당연함인데, 또한 이를 어찌 불가하다고 하겠는가![8]

성리학의 학문은 자신의 본성을 알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그 궁극의 목적은 같지만, 구체적인 과정은 인간의 발달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소학』단계의 아이들은 아직 천명과 같은 것을 이해할 수 없으므로 쇄소응대와 같은 기초적인 실천활동을 통해 가르친다.[9] 반면, 『대학』 과정에서는 격물치지로 비롯되는 이치탐구의 공부가 이루어진다. 인용문에서는 『소학』과정과 『대학』의 공부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소학』교육을

7) 『近思錄 集解』, 「致知」, 8. 未致知, 便欲誠意, 是躐等也. 勉强行者, 安能持久.

8) 『大學或問』, 「總論」. 方其幼也, 不習之於小學, 則無以收其放心, 養其德性, 而爲大學之基本. 及其長也, 不進之於大學, 則無以察夫義理措諸事業, 而收小學之成功. … 今使幼學之士, 必先有以自盡乎灑掃應對進退之間, 禮樂射御書數之習, 使其旣長而後, 進乎明德新民以至於至善, 是乃次第之當然, 又何爲而不可哉.

9) 『朱子語類』, 卷 7, 13. 天命, 非所以教小兒. 教小兒, 只說箇義理大概, 只眼前事. 或以灑掃應對之類作段子, 亦可.

통해 "놓여진 마음을 수렴하여 덕성을 함양함으로써" 『대학』 공부의 기본이 되고, 『대학』은 "의리를 살펴 사업을 이룩해나감으로써" 『소학』에서 익힌 것을 심화해간다. 따라서 성리학의 공부과정은 『소학』을 통해서 기본 덕성을 함양하고, 『대학』공부에서 이치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것에 비추어 내면을 성찰해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이 『대학』의 학습은 『소학』의 성과에 기초하고 있는데, 주희는 『소학』 공부를 생략한다면 착수할 곳(下手處)이 없어서 『대학』의 지식탐구에서 성과를 기약할 수 없다고까지[10] 말한다.

주지하듯이 유학의 전통에서는 일상에서의 실천을 중시해왔다. 『소학』의 편찬은 일상의 비근한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마음의 바탕이 모든 공부과정의 기초로서 확립되었음을 의미한다. 성리학자들이 『소학』교육의 성과로 제시하는 "근본배양"이라는 용어는 이후의 공부가 결실맺을 수 있는 근원적 힘이 『소학』공부를 통해 형성됨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2. 근본배양의 의미

앞에서 『소학』공부의 성과는 "놓여진 마음을 수렴하여 덕성을 함양"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는데, 그것의 의미를 보다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리학의 <마음>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대상, 목적, 방법과 같은 교육의 핵심적인 문제들이 마음에 대한 이해와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율곡의 글을 통해 마음의 본래 상태, 마음의 작용, 마음이 갖기 쉬운 문제점을 일별함으로써 성리학의 공부가 목적하는 바를 논의하고자 한다.[11]

> 신(臣)이 살펴볼 때, 마음의 본체는 맑고 비어있으며 밝아서(湛然虛明) 빈 거울이나 평평한 저울대 같고, 사물(物)을 느껴(感) 움직이면(動) 일곱가지 감정이(七情)이 응하는 데 이것은 마음의 작용입니다. 다만 기(氣)가 구속되고 욕심이 가려져서 본체가 확립되지 못하여 그 작용이 바른 것을 잃기도 하는데, 그 병통은 어둡고(昏) 어지러운 것(亂)이 있을 따름입니다. 어두움(昏)의 병통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이치를 탐구하지 못하여 옳고 그름에 어두운 지혼(智昏)과, 또 하나는 게으르고 방탕하고 매번 잠잘 생각만 하는 기혼(氣昏)입니다. 어지러움(亂)의 병통에도 두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외물에 유혹되어 사욕과 견주어 보는 악념(惡念)과, 또 하나는 생각이 산란하게 일어나 끊임없이 이어받는 부념(浮念)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두가지 병통에 곤란하게 되어, 아직 사물(物)을 느끼기(感) 전에는 어둡지 않으면 어지러워서 이미 미발(未發)의 중(中)을 잃고, 사물(物)을 느꼈을(感) 때에는 지나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하는데 어찌 그 이발(已發)이 조화(和)로울 수 있겠습니까.[12]

마음은 인간의 본성이 담지되어 있는 곳으로서 본래 상태에서는 맑고·비어있고·밝아서 사물을 이치에 합당하게 비추어낼 수 있다. 인용문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깨끗한 거울과 평평한 저울대로 비유하였다. 마음은 사물을

10) 『大學纂疏中庸纂疏』, 17쪽. 今人不曾做得小學工夫, 一旦學大學, 是以無下手處.

11) 본 연구가 연구문제로 삼은 것은 성리학에서 공통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리학자들간의 마음과 아동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관점의 차이에 대하여 논의하지 않는다.

12) 『栗谷集』, 「聖學輯要」. 臣按, 心之本體, 湛然虛明, 如鑒之空, 如衡之平, 而感物, 而動七情應焉者, 此是心之用也, 惟其氣拘, 而欲蔽, 本體不能立, 故其用或失其正, 其病在於昏與亂而已. 昏之病有二, 一曰智昏, 謂不能窮理昧乎是非也, 二曰氣昏, 謂怠惰放倒每有睡思也. 亂之病有二, 一曰惡念, 謂誘於外物計較私欲也, 二曰浮念, 謂掉擧散亂, 相續不斷也. 常人困於二病, 未感物是非昏, 則亂既失未發之中矣, 其感物也, 非過則不及, 豈得其已發之和乎.

접하게 되면 그것을 판단하여 희노애구애오욕(喜怒哀懼愛惡欲)의 감정으로 발출한다. 감정의 발출은 인간에게 본성이 있음을 확인하게 해주는 것이다. 즉 마음이 외물에 접해서 반응할 때 본성은 적절한 감정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예컨대 어린 아이가 우물가로 달려가는 것을 목격하게 될 때 문득 측은지심을 느끼게 되는 것은 인간에게 인(仁)이라는 본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

그런데 사물에 대한 반응은 본성에서 연유할 수도 있고, 개인적인 욕심에 따를 수도 있다. 성리학에서는 그것을 마음의 상태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한다. 예컨대 마음이 맑을 때에는 보고 듣는 것이 분명하고 행동도 공손하고 신중하지만, 마음이 어지러울 때에는 이와 반대된다.[13] 성리학에서 공부란 마음 본래의 상태와 기능을 회복하는 것으로, 본성을 올곧게 보존하고, 사물에 접해서는 왜곡됨없이 그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용문에서 율곡은 마음의 혼탁한 상태를 어두움(昏)과 어지러움(亂)으로 들고 있다. 어둡고 혼란한 상태에서의 마음은 외물과 접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평상심을 가질 수 없고, 사물에 대한 판단에서는 과불급(過不及)의 병폐가 있게 된다. 앎이 명확하게 분별되지 않은 지혼(智昏), 안일함을 좇는 기질적 특성에 따른 기혼(氣昏), 개인적 욕심의 잣대에 따라 외물을 비교하는 악념(惡念), 마음 속에 떠돌아 다니는 생각의 파편들인 부념(浮念)은 마음 본연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사물을 왜곡하여 지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율곡은 네 가지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하여 노력하여도 가장 효과를 보기 힘든 것으로 부념을 들고 있다.[14] 사욕에 흔들리는 악념의 경우에는 선(善)에 뜻을 둔다면 쉽게 이길 수 있는 반면에, 대상과 확고한 연결고리없이 발생하는 부념은 사라졌다가 문득 생기는 것이다. 부념은 존재하더라도 각성하지 못하면 부념이 있다는 것조차 알 수 없다. 따라서 부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지금, 이곳에" 있어 나의 행위와 생각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율곡은 마음이 갖는 문제의 원인으로 지식의 부족, 안일한 태도, 절제되지 않은 욕심, 혼란한 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공부는 사물의 이치를 탐구함으로써 시비를 분별할 것, 욕심을 선한 뜻으로 다스릴 것, 게으른 태도를 다스릴 것, 흐트러진 마음을 거두어 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리학의 공부론은 격물치지(格物致知)와 거경(居敬)으로 정립되었다. 격물치지는 사물의 이치를 인식하는 공부인 반면에, 경공부는 인간의 본성을 올곧게 간직하는 공부이다. 그런데, 성리학의 근본배양에 대한 생각은 경공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경의 의미에 대하여 보다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 경이란 무엇인가?… 죽은 듯이 망연히 앉아 귀로 아무 것도 듣지 않고 눈으로 아무 것도 보지 않으면서 일처리를 전혀 살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단지 단정하고 순일하게 몸과 마음을 거두어들여서 그와같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 바로 경이다.[15]

13) 『近思錄集解』, 「存養」, 65. 心淸時少, 亂時常多. 其淸時, 視明聽聰, 四體不待羈束, 而自然恭謹. 其亂時反是.

14) 『栗谷集』, 「聖學輯要」. 學者之用力最難得效者, 在於浮念. … 惟浮念, 則無事之時, 倏起忽滅有不得自由者, 夫以溫公之誠意, 尙患紛亂, 況初學.

15) 『朱子語類』, 卷12, 75. 然敬有甚物?… 不是塊然兀坐, 耳無聞, 目無見, 全不省事之謂. 只收斂身心, 整齊純一, 不恁地放縱, 便是敬.

> 여기에 밝은 거울이 있다고 할 때 그 거울은 모든 만물을 비춘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도 만물과 서로 교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사려하지 못하도록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것을 피하고자 한다면 오직 마음이 주인됨이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주인이 될 수 있는가. 경을 유지하는 방법뿐이다. 주인됨이 있으면 텅비게 되고, 텅비면 사악한 것이 들어올 수 없다.16)

첫 번째 인용문에서 말하듯, 경은 아무런 지각작용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거울이 사물을 비추듯이, 마음은 접하게 되는 사물과 교감하고 반응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 사물을 참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용문에서는 "몸과 마음을 거두어 들여서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을 것"을 제안한다. 즉 앞서 율곡의 말대로 "지금 여기에" 집중함으로써 부념을 없애고 개인적 욕심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같이 거두어 들인다면 마음 속에 존재하는 이치가 보다 잘 드러나게 된다. 두 번째 인용문에서는 이를 "주인됨이 있음"으로 표현한다. 즉 경공부는 마음을 수렴하여 마음의 지각능력을 높이고 본성을 오롯하게 세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흐트러진 마음을 불러 세운다면 심리적인 갈등이나 잡념으로부터 주재력을 획득하게 되어 마음 본래의 본성이 간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일처리에서 견지되어야 하는 자세로 여겨진다.

따라서 "흐트러진 마음을 수렴하고 덕성을 함양한다"는 『소학』교육의 목적은 경과 관련된 것이다. 경은 절제되지 않은 욕심과 방만한 태도를 거두어들이고 몸의 활동에 의식을 집중하는 것으로, 이러한 상태에서 마음의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다. 따라서 경은 인간의 모든 활동에서 견지되어야 하는 태도로서, 그 기초는 어린시절의 교육적 경험으로부터 확립되어야 한다고 이해된다. 『소학』은 일상의 공간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실천활동을 통해 경을 획득하기 위한 교육과정이었다.

Ⅲ. 근본배양의 방법

『소학』이 근본배양을 위한 문제의식으로부터 편찬되었고, 아동교육의 기본적인 교육내용과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 책이지만, 근본배양과 관련된 모든 방법이 체계화되어 있지는 못하다. 성리학의 다른 책들에서 근본배양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주희와 제자들의 문답을 엮은 『주자어류(朱子語類)』의 「소학」편에는 음악(樂)의 교육적 중요성이 언급되기도 하고, 『근사록(近思錄)』의 「교학류(教學類)」에서는 가무, 노래, 시를 통해 교육해야할 필요성이 제시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학』 및 성리학 관련 서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근본배양을 위한 방법들을 고찰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1. 정좌

마음은 외적인 사물과 적극적으로 교섭할 때도 있고 사물로부터 벗어나 고요하게 유지될 때가 있다. 정좌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극을 의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마음의 에너지를 내면에 집중시키는 것이다.

정좌법은 정신의 고요함에 이르기 위한 다양

16) 『近思錄集解』, 「存養」, 48. 如明鑑在此, 萬物必照. 是鑑之常, 難爲使之不照. 人心不能不交感萬物, 難爲使之不思慮. 若欲免此, 惟是心有主, 如何爲主, 敬而已矣. 有主則虛, 虛謂邪不能入.

한 자세들을 고안하였다.[17] 특히 신체적인 자세는 정신의 상태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예컨대 누워 있는 자세에서는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사색적으로 되기 때문에 정신과 상담에서 활용되는 반면에, 서있는 자세는 새로운 제안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능력은 떨어지지만 판단이 빠르고 행동으로 옮기기도 쉽기 때문에 매니저들의 회의에서 자주 이용된다(고든 R 웨인라이트 저, 조은경 역, 2003 : 76-78). 즉 서있는 자세는 일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있는 정신의 상태와 관련된다. 반면 앉아 있는 자세는 일로부터 물러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정좌를 할 때 눈을 반쯤 감는 것은 사고를 일으키는 시각적 작용을 차단하는데 효과가 있다(南懷瑾 저, 최일범 역, 1988 : 222). 성리학은 몸과 마음의 적극적 활동을 정지함으로써 고요함에 이르는 정좌의 교육적 효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명도 선생은 사람들에게 고요하게 앉아 있는 공부를 가르치셨고 연평 선생 역시 사람들에게 고요하게 앉아 있는 공부를 가르치셨다. 생각건대 정신이 안정되지 않으면 도리가 깃들 곳이 없다.[18]

> 고요하게 앉아 있는 공부는 마치 앉아서 명상하여 선정에 들어가는 듯이 생각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 마음을 내면으로 거두어들이고 잡다한 상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 마음이 담연히 아무 것도 일삼지 않아서 저절로 한결같이 집중하게 된다. 일처리를 만나면 일에 따라 응하고, 일처리가 끝나면 다시 담연하게 된다.[19]

한때 불교에 심취해있던 주희가 유가로 돌아서게 된 계기 중의 하나는 유가에도 정좌공부가 있다는 것을 연평 선생을 통해 배웠기 때문인만큼(윤영해, 2000 : 347), 정좌는 유가의 중요한 공부법이다. 주희는 인용문에서 정좌의 교육적 효과를 두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 마음이 잡다한 상념을 일으키지 않음으로써 정신을 안정시킨다. 실제로 정좌를 통해 몸이 이완되고, 마음이 심리적 갈등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안정될 수 있음은 현대의 학자들에 의해서도 보고되고 있다.[20] 둘째, 마음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일상에서 사물을 접했을 때 보다 잘 집중할 수 있다. 정좌 공부를 통해 마음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갈등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되게 사물을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접하는 일들을 보다 적절하게 처리해갈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좌를 통해 도달하게 되는 마음의 상태는 고요하게 가라앉는 의식뿐만 아니라 찰(察), 즉 보는 의식도 내장되어 있는 것으로(미우라 구니오 저, 이승연 역, 2003 : 242), 사물을 포함한 자신의 내면에 대한 지각능력이 높아진다. 따라서 정좌를 통해 도달하게 되는 고요함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이치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치에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성리학자들은 정좌의 이와같은 교육적 효과에 주목하여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21] 이

17) 유·불·도에 전해지는 정좌의 자세는 대략 96가지인데, 그 방법들은 공통적으로 고요함에 이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南懷瑾 저, 최일범 역, 1988 : 26).

18) 『朱子語類』, 卷12, 137. 明道教人靜坐, 李先生亦教人靜坐. 蓋精神不定, 則道理無湊泊處.

19) 『朱子語類』, 卷12, 141. 靜坐非是要如坐禪入定, 斷絶思慮. 只收斂此心, 莫令走作閑思慮, 則此心湛然無事, 自然專一. 及其有事, 則隨事而應, 事已, 則復湛然矣.

20) 정좌를 하는 중에 일어나는 심신의 변화를 남회근은 마음이 가라앉고 순일하게 됨에 따라 피의 흐름이 완만해지고 심장의 부담도 줄어들며, 뇌하수체의 내분비가 고르게 되어 점차 사지와 몸 속이 충만해지는 느낌으로 정리한다(南懷瑾 저, 최일범 역, 1988 : 45).

21) 율곡은 배우는 사람들에게 먼저 정좌를 가르쳐야 함을 강조하였다(『栗谷集』,「聖學輯要」. 故先正教

리한 점에서 본성을 간직하고 가꾸는 근본배양을 위한 방법으로서 정좌 공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 주의집중

성리학의 아동교육에서 주의집중이 어릴 적부터 강조되었던 공부라는 점은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경공부가 "하나에 집중하고 다른 것에 가지 않는 것(主一無適)"이라고 정의되는 것에서도 주의집중이 중시됨을 알 수 있다. 주희는 하나에 집중하는 것(主一)의 의미를 "걷고 있을 때는 마음이 곧 걷는데 있을 뿐이며, 앉아 있을 때는 마음이 곧 앉는 데 있을 뿐이다"[22]로 해석하여, 몸의 활동에 마음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설명한다. 또한 주희는 당시의 학자들이 학문에서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것도 정신을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함으로써,[23] 주의집중이 학문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한 조건임을 강조한다. 주희는 다음의 글에서 주의집중이 어릴적 학습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한다.

> 옛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이 공부(경공부 : 연구자 주)에 힘썼으니 활쏘기를 배울 때도 마음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맞힐 수 있었으며, 수레 모는 법을 배울 때도 마음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말을 다룰 수 있었겠는가. 서예와 산술도 또한 그러하다. 지금은 어려서부터 이 공부를 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지만 다잡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해야만 한다. 만약 이러한 공부를 하지 않고 책을 읽어서 의리를 찾으려 한다면 흡사 집을 세우면서 집터가 없고 기둥 놓을 곳이 없는 것과 같다. 이 마음에 주인되는 것이 있은 연후에야 학문이 귀착하는 바가 있을 것이니, 만약 이 마음이 잡되고 혼란스러우면 자연히 정처가 없게된다.[24]

주희는 활쏘기, 수레몰기, 서예, 산수 등의 전통적인 교육내용의 핵심이 마음을 집중하는 것에 있었다고 이해한다. 그리고 옛날과 생활 조건이 다른 당시에 그러한 것들을 똑같이 가르칠 수 없더라도 몸의 활동에 마음이 함께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주희는 주의집중의 공부가 정좌의 공부와 마찬가지로 마음을 고요하게 안정시키고 본성을 간직시키는 것으로서, 사물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 가능하게 된다고 이해한다.

이것은 현대 심리학에서 주의집중의 핵심적 특성을 선택성과 적절성으로 이해하는 것과 상통한다. 즉 주의집중은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능력과 동시에 선택한 한가지 일에서 보다 적절한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金聖泰, 1982). 이처럼, 주의집중은 깊이 생각하기, 관찰하기, 정확히 듣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신적 활동의 최상의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다. 주의집중은 부단한 노력을 통해 성취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人靜坐, 此以九容持身, 此是學者最初用力處也.) 또한 퇴계는 『聖學十圖』의 「숙흥야매잠도」에서 하루 일과 중 맨 처음 해야할 일로 마음을 고요히 정돈하는 일을 들었다(이황 저, 이광호 역, 2001). 즉 정좌는 책을 읽거나 일에 응하기 이전에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서, 하루의 일과 중에서도,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앞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었다.

22) 『朱子語類』, 卷12, 27. 若行時, 心便只在行上, 坐時, 心便只在坐上.

23) 『朱子語類』, 卷12, 129. 精神意思都恁地不專一, 所以工夫都恁地不精銳.

24) 『心經附註』, 「敬以直內章」. 古人自少小時, 便做了這工夫, 如學射時, 心若不在, 何以能中. 學御時, 心若不在, 何以使得馬. 書數亦然, 今旣自小, 不曾做得, 不奈何. 雖著從今做去, 若不做這工夫, 却要讀書看義理, 恰似立屋無基址, 此無安頓屋柱處, 得此心有箇存主, 然後, 爲學, 便有歸著, 若此心, 雜然昏亂, 自無頭當.

> 정호가 말했다. "나는 글씨를 쓸 때 매우 경을 유지한다. 이것은 글씨를 잘 쓰려고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곧 학문일 뿐이기 때문이다."[25]

서예는 성리학자들에게 가장 흔한 취미거리이다. 그러나 올바른 의미의 서예 공부는 글씨를 잘 씀으로써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글씨쓰는 행위에 집중함으로써 마음을 가다듬는 방편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성리학자들은 비록 올바른 생각이라도 때에 맞지 않게 일어나거나, 잡다하게 일어난 경우는 선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는데,[26] 이로부터 하나하나의 일에 집중하는 것 자체를 공부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주의집중의 교육방법은 걷기 자체에 집중하기, 산책하면서 주변의 사물에 집중하기, 오감훈련, 몸 느끼기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최근 교육현장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최근한 연구(임재택 외, 2003)는 이러한 교육을 실시한 결과 아이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산만한 아이들이 차분해지고 집중력과 관찰력이 높아지고, 주변의 변화에 민감해지며, 주변의 생명체를 소중히 여기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주의집중 활동이 마음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근본배양의 방법으로 현대 교육에서도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도덕적 환경 제공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은 아이들의 인성과 정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유가에서도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그것은 도덕적 환경을 언어를 배우는 환경으로 비유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 항상 옳은 사람과 기거하면 옳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제(齊)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제(齊)나라 말을 하지 못함이 없는 것과 같고, 항상 옳지 못한 사람과 함께 기거하면 옳지 않음이 없을 수 없는 것은 초(楚)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초(楚)나라 말을 하지 못함이 없는 것과 같다.[27]

도덕적인 환경이 도덕적인 사람을 길러내는 것은 자신의 모국어를 익히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즉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은 아이의 인격형성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교육을 뜻하는 용어인 "풍화"[28]는 지속적인 환경의 영향에 의해 서서히 변화되는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인간 형성에 있어서 도덕적 환경을 중시하는 생각은 이후의 성리학자들의 언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이천 선생이 말씀하셨다. "옛 사람들은 자식을 낳아서 먹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되면 가르쳤다. 대학의 법은 미리하는 것을 우선으로 여겼다. 사람이 어려서 지각하고 생각함에 주장이 없을 때 바른 말과 지당한 의론을 날마다 앞에 펼쳐 주어야만 한다. 비록 알지 못하더라도 영향이 미치도록 시끄럽게 얘기하여 귀와 배를 가득 채우게 해야 한다. 오래 되면 스스로 편안하게 습관이 되어 마치 원래 가지고 있던 것처럼 된다. 그러면 비록 다른 말로

25) 『近思錄集解』, 「存養」, 22. 明道 先生曰, 某寫字時甚敬, 非是要字好, 只此是學.

26) 『近思錄集解』, 「存養」, 52. 葉采 集解. 發之而當, 則無害也, 苟發不以 時, 或雜然而發, 或過而無節, 其事雖正, 亦是邪念.

27) 『新書讀本』, 「保傅」, 243쪽. 習與正人居之, 不能無正也, 猶生長於齊之不能不齊言也. 習與不正人居之, 不能無不正也, 猶生長於楚之不能不楚言也.

28) 『小學集註』, 「小學書題」. 今頗蒐輯, 以爲此書, 授之童蒙, 資其講習, 庶幾有補於"風化"之萬一云爾. : 集說. 風化, 詩序謂, 風, 風也, 教也. 風以動之, 教以化之也.

> 써 유혹하더라도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미리 하지 않으면 차츰 자라게 될 때 사사로운 뜻과 치우친 기호가 안에서 생겨나고 갖가지 변론하는 말들이 바깥에서 스며들어, 순수하고 완전해지려고 해도 될 수 없다."[29]

아동기는 기본생활 습관이 갖추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이 시기에 한번 형성된 습관은 성장한 후에는 좀처럼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양옥승 외, 2003 : 10) 일찍부터 올바른 기본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성리학을 포함한 유학의 전통에서는 교육이 "먹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을 때부터" 미리 시작되어야 한다고 이해한다. 즉 유가의 교육은 "미리 형성"함을 중시한다. 이것은 "처방"보다는 "형성"에, "사후대책" 보다는 "미리 가르침"이 교육의 핵심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미리 형성"하는 유가의 교육방법은 아이들이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바른 말을 아이들 앞에서 들려줌으로써 아이들이 쉽게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환경이 인간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환경적 조건들을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외부에서 강제로 부과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존 듀이 저, 박철홍 역, 2002 : 134) 아이들을 도덕적인 인간으로 형성해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리학을 포함한 유가의 교육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가치에 익숙지도록 하는 교육적 배려가 배제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을 본받아 행동하고 어떠한 말에 익숙하도록 할 것인가라는 교육적인 관심의 맥락에서 노래, 춤에 대한 성리학자들의 언급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주희는 「곡례」에 있는 "옷자락이 펄럭이지 않게 하고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한다'(衣毋撥, 足毋蹶), '마루에 올라설 때는 반드시 기침 소리를 내며, 방문으로 들어설 때는 반드시 아래를 쳐다봐야 한다'(將上堂, 聲必揚. 將入戶, 視必下)"와 같은 말들이 세 자로 된 것은 일상의 예절을 아이들이 따라 부르기 쉽게 음률을 맞추었기 때문[30]이라고 하며, 당시의 아이들에게도 의미를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예절을 시로 만들고, 그것을 부르면서 가무를 곁들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한다.[31] 이와같이 아이들이 노래를 흥얼거리는 중에 자연스럽게 예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희의 생각은 교육의 현장에서 어떻게 또 얼마나 적용되었는지 더욱 연구를 해야할 것이지만, 노래와 가무 등의 몸동작을 활용하는 교육이 성리학의 교육론과 상치하지는 않는 것임은 확인할 수 있다.

4. 예의 실천

예는 유가의 전통에서 분파적 차이를 막론하고 핵심적인 교육내용으로 이해되었다. 고대 사회의 종교적 의례에 기원을 두고 있는 예는 일상적인 행위작법, 사람들간의 관계형식으로 변했고, 공자에 이르러서 행위 각각의 도덕적 근거를 포함하는 의미로 변화되었다. 주희는 예를 "천리의 절문",[32] 즉 예는 일상의 규범과 관계맺

29) 『近思錄集解』, 「教學類」, 2. 伊川先生曰, 古人生子, 能食能言而教之, 大學之法, 以豫爲先. 人之幼也, 知思未有所主, 便當以格言至論, 日陳於前. 雖未曉知, 且當熏聒, 使盈耳充腹, 久自安習, 若固有之, 雖以他說惑之, 不能入也. 若爲之不豫, 及乎稍長, 私意編戶生於內, 重口辨言鑠於外, 欲其純完, 不可得也.

30) 『朱子語類』, 卷 7, 13. 每嘗疑曲禮, 衣毋撥, 足毋蹶, 將上堂, 聲必揚, 將入戶, 視必下等協韻處皆是古人初教小兒語.

31) 『近思錄集解』, 「教學類」, 8. 教人, 未見意趣, 必不樂學. … 欲別作詩, 略言教童子灑掃應對事長之節. 今朝夕歌之, 似當有助.

32) 『論語集註』, 「顔淵」1 註. 仁者, 本心之全德. 克勝也, 己謂身之私欲也. 復反也, 禮者天理之節文也.

음의 형식을 의미하지만, 거기에는 이치가 관철되어 있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현대 사회에서 예교육은 그 의미와 필요성이 받아들여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교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예가 학습자의 모든 행위를 규정·통제함으로써 당시의 정치 질서와 권력 관계를 내면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이해한다. 즉 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적 권력관계, 위계질서가 반영되어 있어 그것을 실천하는 중에 개인들은 그 질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 특히 예는 생각, 의복, 공간배치, 얼굴빛과 같은 매우 구체적인 것으로 개인들을 구별짓고 차별함으로써 통제한다는 것이다(김동노, 2004).

육체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명목상으로는 자율적이지만 실제로는 권력에 길들여진 수동적인 인간을 형성한다는 것을 문제삼는 이와같은 시각은 권력관계가 인간의 생활 곳곳에 어떻게 관철되는가를 밝히는데 있어서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리고 예가 개인들의 미시적인 생활영역에 이르기까지 작용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강력한 기제였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두가지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첫째, 공동체 생활에서 구성원들이 만족스럽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관계맺음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이질적인 요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에서 구별, 질서, 조화, 존중, 공경과 같은 것들은 매우 중요한 원리이다. 인간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고정화된 위계이지, 위계 자체가 아니다. 자신의 역할 속에서 타인들과 구별지으면서도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것이다. 다만, 현대는 예가 전일적으로 받아들여지던 시대와 달리 다양한 요소와 사고방식들이 공존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예교육은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기술과 상대에 대한 존중의 정신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둘째, 위의 견해는 육체에 작용하는 권력관계에 집중함으로써, 근대 이래 교육 실천과 교육학에서 갖게된 육체의 추상화의 경향에 대하여 주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조상식, 2002 : 31). 현대 교육이 안고 있는 추상화된 지식, 인간됨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가치습득의 문제점은 몸의 실습을 배제한 채 지식 자체만을 추구하는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예 사상의 핵심은 정신과 실천의 일치, 가치의 이해를 넘어선 "체득"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은 몸으로의 수행이 마음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하는 다음과 같은 인식으로부터 연유한다.

> 언잠(言箴)에 말하였다. '사람의 마음의 동함은 말로 인하여 퍼지게 되니, 발언함에 조급하고 망녕됨을 금해야 마음이 이에 고요하고 전일해진다. 하물며 말은 추기(樞機)라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우호를 내기도 하니, 길흉과 영욕은 오직 말이 부르는 것이다. 말을 쉽게 함에 손상되면 허탄해지고, 번다함에 손상되면 지리해지며, 자신이 함부로 하면 남이 거스르고, 나가는 것이 어그러지면 돌아오는 것이 어긋나니, 법도가 아니면 말하지 말아 훈계하신 말씀을 공경할지어다.'[33]

인용문은 말에 대한 성리학의 인식을 잘 드러내준다. 발언된 말은 내면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다. 즉 "마음의 동함은 말로 인하여 퍼진다." 예컨대 사람들은 약속, 맹세, 고백과 같은 발언을 통해 유동적인 자아로부터 벗어나 책임있는 자아를 시험하기도 한다. 또한 호칭과 불리어지는 이름에 의해 윤리적인 자아가 형성되기도 한

33) 『小學集註』, 「嘉言」, 68. 其言箴曰, 人心之動, 因言以宣. 發禁躁妄. 內斯靜專. 矧是樞機. 興戎出好. 吉凶榮辱, 惟其所召. 傷易則誕. 傷煩則支, 己肆物忤, 出悖來違. 非法不道, 欽哉訓辭.

다. 때때로 '아버지'와 '선생님'에 대한 의식보다, '아버지' 혹은 '선생님'이라고 불려졌을 때 우리의 삶이 '아버지'와 '선생님'에게 합당한 틀로 형성되기도 한다(李奎浩, 1994 : 138-148). 즉 발언된 말에 의해 내면이 경험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말에 한정되지 않는다.

예의 실천을 강조하는 것은 이와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나른한 정신은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깨어나듯이, 몸은 마음의 명령을 받는 듯하지만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송순재, 2003 : 59). 인간의 몸과 마음은 이처럼 상호적인 것으로서, 유학의 예론은 올바른 실천을 통해 마음을 변화시켜 가는 것을 의도한다. 즉 마음 하나만 있으면 몸을 마음대로 주재할 수 있다고 여기지 않고, 몸이 마음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요소임을 인정하고, 몸으로의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 정신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수신"이라는 표현은 이와같은 몸과 마음의 관련성을 잘 드러내준다. "수신(修'身')"은 몸의 닦음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인격을 향상시킨다는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다. 즉 몸과 마음은 상호 얽혀있어서 마음은 몸의 훈련을 통해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다(유아사 야스오 저, 박희준 역 : 1990). 몸의 반복적 실행은 단순히 그러한 행동에 익숙해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형성해가는 조건인 것이다.

유가사상에서 실천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예(禮)이다. 『소학』에서는 부모를 섬기는 예가 자신의 외모를 단정하게 하고, 얼굴빛과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부모의 생활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것, 따뜻하고 추운 환경에 관심 갖는 것, 아프거나 가려움을 직접 살피는 것 등의 실천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즉 『소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타인과 관계맺는 예들은 생활 공간에서 타인을 보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인 실천이라 할 수 있다(신동은, 2004a). 성리학에서 의도하는 예교육은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들을 직접적으로 가르침으로써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생활의 공간에서 몸으로 실천하는 중에 체득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것은 아동의 본성에 알맞는 발달과정이며 자연스러운 학습과정이라 할 수 있다(와다 슈우지 저, 박선영 · 노명희 역, 1997 : 220).

Ⅳ. 논의 및 결론

이상에서 성리학의 아동교육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근본배양의 의미와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제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성리학의 근본배양의 특징에 대하여 나름의 결론을 맺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성리학의 아동교육 원리가 담겨있는 『소학』을 편찬하게 된 배경을 논의함으로써 근본배양에 대한 이해를 풀어내었다. 성리학에서 근본배양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격물치지, 즉 본격적인 이치의 학습에 앞서서 마음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주희는 『소학』교육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흐트러진 마음을 거두어 들여서 덕성을 함양"하는 것, 즉 경(敬)으로 이해하였다. 이후의 『대학』의 격물치지 학습은 『소학』을 통해 얻은 경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역으로 이치에 대한 인식은 경이 보다 자연스럽게 실천될 수 있는 힘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성리학의 근본배양의 방법으로 본 연구는 정좌, 주의집중, 도덕적 환경의 제공, 예의 실천을 들었다. 성리학에서는 정좌와 주의집중의 연습

을 통해서 아무렇게나 들끓는 욕망이나 심리적 갈등으로부터 마음을 거두어들여서 안정되게 유지함으로써 사물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여겼다. 또한 도덕적 환경을 마련해주어서 자연스럽게 가치에 익숙하도록 해야 함이 중시되었다. 예의 실천을 강조하는 것은 유가의 오랜 전통이다. 성리학은 몸과 마음이 긴밀하게 연결되었다고 이해하기 때문에, 몸으로의 꾸준한 실천을 통해 마음이 형성된다고 이해한다. 『소학』은 아이들의 교육이 생활 세계에서 상대방에게 부드러운 얼굴빛과 온화한 말투를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타인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한 배려를 해주는 실천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성리학의 근본배양은 마음에 아무런 터전을 마련하지 않고 빨리 지식교육을 시키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함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성리학은 어릴 적부터 타인을 대하는 올바른 관계 맺음의 기술을 익히고, 아이들이 즉각적인 욕망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욕망이 보다 일관성 있는 행동과 관련맺을 수 있도록 욕망을 조절하는 힘을 형성해주는 것을 중시한다.

이와같은 성리학의 아동교육 이해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루라도 더 빨리" 지적인 교육에 몰두하는 현대 교육풍토에 대하여 비판할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해 준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교육에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감정 표현을 강조하는(문미옥 · 이혜상 · 민행난, 2004 : 32) 현대의 유 · 아동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요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밝혀진 것은 성리학의 아동 교육이 엄격하기만 한 예 교육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정좌와 같이 몸과 마음을 이완하는 것이 중시되었고, 가무, 노래와 같은 몸의 활동이 성리학의 교육론과 상치되는 것도 아니다. 즉 도덕적 인간을 양성하고자 하는 성리학 교육은 이러한 목적이 가능한 한 무리없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교육방법을 강구했다.

다만 개개인에 대한 이해가 성리학의 공부론에는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경험은 외적이고 객관적인 상황과 내적이고 주관적인 요소가 함께 상호작용하는 상황적인 것이지만(듀이 저, 박철홍 역, 2002 : 137), 성리학은 도덕적 인간 양성이라는 목표에 치중하여 아동 개인에 대한 관심에 소홀하였다. 이것은 현대의 성리학이 풀어야 할 문제로서, 학습자 개개인의 요구를 교육활동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관점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成百曉 譯(1993). *小學集註*, 傳統文化硏究會.

黎靖德 編 · 王星賢 點校(1983). *朱子語類*, 北京 : 中華書局. : 허탁 외 역(1998), *주희어류 1, 2*, 청계; 허탁 외 역(2001), *주희어류 3, 4*, 청계.

민족문화추진회(1968). *국역 퇴계집*.

민족문화추진회(1984). *국역 율곡집*.

賈誼 · 饒東原 譯 · 黃沛榮 校閱(民國87年). *新書讀本*, 三民書局股份有限公司.

주희 · 여조겸 편저 · 엽채 집해 · 이광호 역주(2004). *근사록집해*, 아카넷.

成百曉 譯(2001). *心經附註*, 傳統文化硏究會.

朱熹 · 趙順孫 纂疏 · 黃坤 整理(1992). *大學纂疏中庸纂疏*, 華東師範大學出版社.

강혜원 · 유권종 · 박충식(2001). 유교 심성론에 근거한 체화방법이 유아의 기본생활 습관 및 자율성에 미치는 효과, *아동학회지, 22(4)*.

고든 R 웨인라이트 저 · 조은경 역(2003). *몸짓을 알면 대화가 즐겁다*, 미래의 창.

김동노(2004). 유교의 예와 미시적 권력관계 : 소학과

주자가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유교의 예와 현대적 해석*, 청계.

金聖泰(1982). *敬과 注意*, 高麗大學校 出版部.

南懷瑾 저 · 최일범 역(1988). *정좌수행의 이론과 실제*, 논장.

류점숙(1994). *전통사회의 아동교육*, 중문.

문미옥 · 류칠선(2000) 소학에 나타난 아동교육론, *아동학회지, 21(1).*

문미옥 · 이혜상 · 민행난. (2004), *한국 전통문화와 유아교육*, 양서원.

미우라 구니오 저 · 이승연 역(2003), *주자와 기 그리고 몸*, 예문서원.

송순재(2003). 몸공부에 관한 교육학적 단상 모음, *처음처럼, 39/40,* 내일을 여는책.

신동은(2003).『小學』의 실천교육원리와 현대적 의의,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_____(2004a).『소학』의 교육적 원리 연구, *教育哲學, 31.*

_____(2004b). 성리학의 몸공부 이해, *教育哲學, 32.*

와다 슈우지 저 · 박선영 · 노명희 역(1997). *어린이의 인간학*, 아름다운 세상.

안경식(2000). *한국 전통 아동교육사상*, 학지사.

양옥승 외(2003). *21세기 바람직한 유아교육에 대한 한국유아교육학회의 입장*, 정민사.

유안진(1990). *한국 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서울대학교 출판부.

유아사 야스오 저 · 박희준 역(1990). *氣 修行 身體*, 범양사 출판부.

윤영해(2000). *주자의 선불교 비판 연구*, 民族社.

李奎浩(1994). *말의 힘*, 第一出版社.

이황(李滉) 저 · 이광호 역(2001). *성학십도*, 홍익출판사.

이승환(1996). 눈빛 · 낯빛 · 몸짓, 정대현 외, *감정의 철학*, 민음사.

임재택 외(2003). *선생님, 우리도 명상할 수 있어요*, 양서원.

조상식(2002). *현상학과 교육학*, 원미사.

존 듀이 저 · 박철홍 역(2002). *경험과 교육*, 문음사.

최광만(1998).『논어』의「子夏之門人小子章」에 비추어본 朱子의 小學教育論, *教育史學研究, 8,*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_____(1999). 儒學教育에서의『小學』의 위상, *教育史學研究, 9,*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최양미(2000). 율곡의 인성론과 아동교육관 연구, *유아교육연구, 20(2).*

2004년 10월 31일 투고 : 2004년 12월 23일 채택